

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렇게 항우연 AETF에서 시험을 거쳐 개발된 엔진들은 현재 체계에 적용되어 성공을 거두었으며, 후속과제로 2018년도부터 약 40억원 수준의 후속개발 엔진의 고공시험이 예정되어 있다.

항공용 가스터빈 엔진 외에도 항공용 왕복동 엔진의 고공환경 시험평가를 2014년 12월에 시작하여 현재 계속 진행 중이며, 2017년 2월 종료예정이다. 2017년 2월 종료 후에도 후속 계약에 대한 협의가 현재 진행 중이다. 항공용 왕복동 엔진은 고고도 성능시험, 저온 시동시험 등의 시험과 보조흡입구 성능시험 등을 수행하였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KFX 사업에도 AETF가 활용 될 예정이다. 2017년 1월부터 시작 예정인 KFX APU 연소기 성능시험에도 AETF를 활용하여 고고도 에서의 KFX APU 연소기의 시동성능 및 운용성을 확인할 예정이며, 이후 KFX APU 엔진 자체에 대한 고공환경 시험도 개발 주체인 한화테크윈과 협의 중에 있다. 이상의 엔진들은 국내에서 개발되는 엔진들로서 국가기술의 유출이 우려되어 국내시험을 수행하였다.